



## 「국내 위성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기획특집을 내면서...

우리 정부는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정보통신, 환경,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안보 등의 인프라가 되는 위성 및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우주개발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함께 단계별 기술개발분야 및 전략에 대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성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 러시아, 유럽국가연합(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후발 우주개발국가보다도 시작이 늦어 낙후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소형과학시험위성인 우리별 1, 2, 3호의 발사 및 운용,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 1, 2, 3호의 발사 및 운용,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급 지구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위성) 1호가 미국의 토러스 발사체에 의해 1999년 12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현재 전자광학카메라로부터 촬영한 6.6m의 고해상도 영상을 성공적으로 보내오는 등 본격적인 위성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별 위성의 후속 프로그램인 과학위성 1호는 2003년말, 아리랑위성 2호는 2004년말 발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원 및 독자 여러분들에게 2002년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 위성사업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위성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로 특집 기획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위성개발 능력은 경제력, 과학기술력 및 국가안보 등 그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대외적으로 가늠하는 상징적인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T) 혁명을 위해 우주는 지상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집을 위하여 옥고를 집필하여 주신 필자 여러분들과 통우연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통우연 연구회지가 국내 위성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집위원장 장 영 근